

삼성 'AI' 밀고, LG '올레드' 끌고... 韓, 글로벌 TV시장 주도

삼성전자 프리미엄 TV 판매 호조 'AI 홈 라이프' 대중화 목표 내세워
LG OLED 시장에서 49.4% 점유율 무선 올레드 TV 라인업 등 공략

글로벌 TV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호조로 전세계 TV 시장 1위를 지켰다. LG전자는 차세대 TV로 꼽히는 올레드 시장에서 절반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25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TV 출하량은 작년 2분기에 비해 3% 성장한 5600만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28.8%를 기록하며 세계 TV 시장 1위 지켰다.

금액 기준 점유율은 LG전자가 16.6%로 2위를 차지했고, TCL (12.1%), 하이센스(10.0%) 등이 뒤를 이었다.

◆ **삼성 프리미엄 TV 효자노릇... 용석우 사장 "AI TV 대중화 속도"**

삼성전자가 상반기 점유율 1위에 오른 배경으로는 프리미엄 TV 모델의 판매 호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 모델이 Neo QLED 8K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에 52.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삼성 TV가 달성한 이 같은 수치는 올해 출시한 AI TV를 비롯해 초대형 TV, 네오 QLED, OLED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전략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AI TV를 앞세워 'AI 홈 라이프'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디지털연구소(R4)에서 열린 'AI 스크린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AI 음성 기술 등 새로운 기능을 대거 선보이고, TV 운영체제인 '타이젠 OS'의 무상업그레이드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7년간 삼성전자 AI TV 플랫폼인 타이젠 운영체제(OS)를 통해 추가되는 신기능을 무상으로



베트남 최대 쇼핑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에서 관람객들이 LG 올레드 TV의 미디어아트를 감상하고 있다. /LG전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LG, 차세대 올레드 TV 1위 "하반기 본격 공략"**

이날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올레드 TV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합산 점유율은 76.6%에 달한다. 전년 상반기(70%) 대비 하위권 업체들과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다.

이 가운데 올레드 TV 시장에서는 LG전자가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올레드는 화소 하나하나 당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색재현율과 화질이 뛰어나 차세대 TV로 꼽힌다.

이에 올레드는 올해 상반기 1500달러 이상 TV 시장에서 올레드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2%에서 올해 같은 기간 45%로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LG전자는 올레드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점유율 49.4%, 수량 기준 점유율 52.6%로 1위를 지켰다.

특히 상반기 75형 이상 초대형 올레드 TV 시장에서는 출하량 기준 58%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27.2%를 기록해 2위다. 삼성전자는 올레드 TV 신제품을 10년 만에 재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다.

이에 LG전자는 지난 7월 출시한 24년형 무선 올레드 TV 라인업을 앞세워 하반기 프리미엄 TV 수요를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LG전자는 "공감지능 TV '올레드 에보'를 필두로 투명, 무선, 벤더블 등 다양한 폼팩터와 업계 최대 라인업을 앞세워 차세대 프리미엄 TV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올해 쌀 소비, 사상 최저 기록... 1인당 60kg 이하로 감소

통계청,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 조사 아침 밥 거르는 등 생활 변화 영향 소·돼지·닭 등 육류 소비량은 증가

올해 국내 쌀 소비가 역대 최소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게다가 쌀의 과잉 공급이 더해져 산지 쌀 값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2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6.4kg에 그쳤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 61년 사이 가장 적은 수치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9년 59.2kg

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60kg을 밑돌았다. 이어 코로나19가 퍼진 2020년과 2021년에 외식을 줄였음에도 각각 57.7kg, 56.9kg으로 잇따라 감소했다. 30년 전인 1993년만 해도 110.2kg에 달한 바 있다.

통계청은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을 내년 1월쯤 발표한다. 농가 등에서는 올해 쌀 소비가 2023년보다도 더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요가 많지 않은 탓에 소비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마트 및 온라인몰 등을 운영하는 유통사발 집계

서는 올해 상반기 쌀 판매량이 작년동기에 비해 많게는 10%, 적게는 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생활 변화가 이러한 쌀 소비 급감을 불러온 것으로 풀이된다. 아침밥을 안 먹는 등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 한 끼에 먹는 밥의 양도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지난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3대 육류(소·돼지·닭) 소비량은 58.4kg로 쌀(56.7kg)을 넘어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인당 3대 육류 소비량이 2028년에 61.4kg, 2033년에는 65.4kg까

지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한편 쌀로 만든 가공식품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체 양이 집밥용 쌀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쌀 소비 감소를 상쇄하기에 역부족이다.

최근 수확기를 앞두고 산지에서 재고 처리를 위해 쌀을 저가로 판매해,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20kg에 4만 4435원으로 불과 열흘 만에 0.4% 내렸다. 한 가마니(80kg) 가격은 17만 7740원으로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에 못 미친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5

일 20kg당 5만 4388원, 가마당 21만 7352원에 각각 거래된 이후 10개월 연속 내렸다.

농민단체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오는 27일 국회 앞에서 쌀 수급 안정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정부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쌀 값 대책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확기 대책을 예년보다 당겨 다음 달 초 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가계대출 규제 강화 앞두고, 5대은행 주담대 6.7조 증가

집값 상승 기대감에 거래 증가 영향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

오는 9월부터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도가 줄기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바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고금리를 내는 등 대출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농협 등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2일 기준 722조 5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15조 7383억원에서 약 20일만에 6조 7902억원 불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5조



집값 상승 기대감에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뉴시스

8957억원으로 같은 기간 6조 1456억원 늘었다. 20일간 가계대출 증가액의 90% 이상을 주담대가 차지했다.

◆ **"한도 줄기 전에"... 주담대 막차 수요 ↑**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집값 상승 기대감에 주택 매

매 거래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간 주택 값을 전망하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18로 지난 4월(101) 100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더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주택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 2월 6억 6464만원에서 3월 6억 6404만원으로 하락한 뒤 ▲4월 6억 6466만원 ▲5월 6억 6573만원 ▲6월 6억 6914만원 ▲7월 6억 7620만원으로 상승했다.

문제는 이 같은 주택수요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부담(DSR)과 맞물리며 더 증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0.35%p 높은 1.2%p로 산정했다. 한도가 약 3~9% 감소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 **'주담대' 금리 줄줄이 인상**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가계대출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당분간 고금리 상황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코픽스(COFI

X) 금융채 등 기준이 되는 기본금리에 은행이 자체 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현재 주담대 등 신규 변동금리에 반영하는 기본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16일 기준 3.42%로 올해 1월 3.84%보다 0.42%p 하락했다.

은행들은 기본금리가 하락하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다섯차례 인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하면 그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고객들이 대폭 늘었다가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가산금리까지 낮출 경우 대출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기 전까진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유리 기자 yu115@